



제목	The Crimean War: A Histor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Picador
발행일	2012. 2. 28.
저자	Orlando Figes
출판도시	Basingstoke
페이지수	624
ISBN 또는 ISSN	978-1250002525

**내용 요약**

『크림 전쟁사』는 부동항을 찾아 남하하려는 러시아와 이를 막으려는 터키, 영국, 프랑스가 벌인 크림 전쟁(1853~1856)의 참상을 서술한 역사서이다. 저자 파이지스에 따르면, 크림전쟁은 새로운 산업 기술, 총, 증기선과 철도, 병참선, 전화와 같은 통신장비가 활용된 현대전의 초기 사례이다. 저자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유럽, 러시아, 오스만의 사료를 활용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궁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854년의 세바스토폴 전투를 기록한 젊은 톨스토이부터 종교적인 구원의 꿈에 사로잡힌 차르 니콜라스 1세(Nicolas I 1825~1855 재위)까지, 전장의 일반 병사와 간호사부터 포위된 도시의 여성과 아이들의 상황까지 해명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현대적인 갈등의 근원을 추적하였다.

책은 총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종교 전쟁, 동부의 문제들, 러시아의 위협, 유럽에서의 평화의 종말, 개전 휴전 상태, 가을의 세바스토폴, 1월과 2월의 장군들, 세바스토폴의 함락, 새로운 질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자는 갈등의 본질은 종교전쟁이었고, 많은 사가들이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고 결론짓는다. 저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은 신이 자신의 편에 있다는 믿음으로 전쟁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와 터키의 갈등의 배후에는 그리스 정교와 이슬람의 종교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다. 러시아는 콘스탄티노플과 수백만의 그리스 정교 신도들을 오스만의 지배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1990년대의 발칸 전쟁과 호전적인 이슬람의 성장을 통해 종교가 전쟁을 획책하는 역할을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